

**승대극회 제 49 회 가을정기공연**

**TAXI TAXI**

작 : 김상수  
기획 : 소장호  
이명성  
연출 : 박원상

일시 : 1993년 10월 21 · 22일 (18시)  
23일 (14 · 17시)

장소 : 숭실대학교 대학극장 (제1공학관 3층)

주최 : 숭실대학교 승대극회

후원 : (주) 서울트레드 클럽



극회장 소장호

내 방엔 두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정상인 것과 제멋대로인 것  
여전히 무언가가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송대극회가 양면에 철저할 수  
있는 것은 연극에 대한 강한 집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무대에선 낯의 고통을 새로운 밤의  
고통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멋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멋과 집념을 모아 가을정기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공연을 준비한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기다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송대극회

샬롬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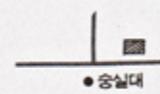
TEL. 812-4764



RESTO & HOF

X-포인트

TEL. 817-8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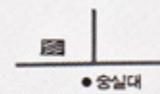
중국요리 전문점  
(CHINE RESTAURANT)

연래춘

TEL. 816-2007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습니다.

로얄박스



축  
공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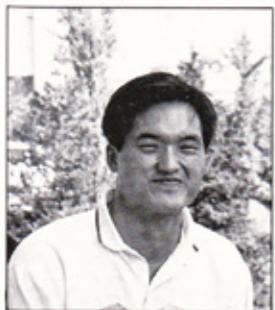
승대극회 49회 가을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배님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승 대 학 교 송 대 극 회 동 문 회 일 동

## 기획의 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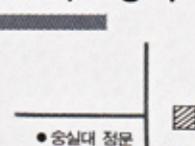
소장호 (전산 89)



이명성 (기계 92)

기획이라고 특별히 할말은 없다.  
다만  
연출형에게 고맙고  
Cast들에게 고맙고  
스텝을 맡아준 형들에게 고맙고  
동기들, 후배들에게 고맙고  
특히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 준 숭대극회에 고맙다.

## 구슬모아 당구장



## 여 · 우 · 사 · 이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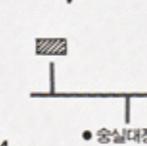
T. 815-8694



## 힐튼 명과

맛의 승부  
즉석빵 전문

TEL. 812-4414



무대감독/송근호 (기계 87)



무대장치/손진용 (산공 87)



무대미술/정현용 (법 87)



조명 I /황명식 (전기 88)



진행 I /정석용 (경영 90)



슬라이드 I /조태희 (섬유 92)



조연출/허석환 (기계 91)



조명 II /박정극 (법 93)



섭외/김진범 (전산 92)



홍보/이정원 (국문 93)



음향/류은숙 (산공 92)



슬라이드 II /이명석(산공 93)



기획보/류성환 (건축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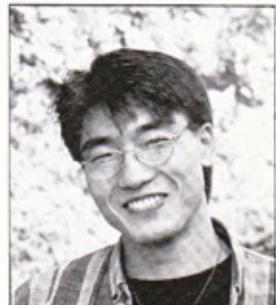
소품/양명호 (법 93)



진행 II /장재연 (영문 93)

## 무대 밖의 사람들

## 연출의 변



박원상 (독문 88)

적당한 감상도 없고  
그럴싸한 이론도 없이……

93年 10月 11日

## 무대 안의 사람들



중사/임경화 (화학 87)

연습기간동안 정말  
진저리쳐지게 느낀건,  
내가 정말 연극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매일의 불확실성이 나를  
당혹하게 했고 힘들게 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난 중사가 되야했다.



베트남여자/송숙희 (영문 92)

태워야만  
한다.  
내것을……



천사/김소희 (독문 91)

악! 날고 싶다.  
정말 날을 수 있다면……

날개가 무겁다.  
Birdy처럼  
비둘기나 잡으려 갈까?

경양식 & 호프전문점  
**빼에로**  
• 중실대  
TEL. 812-5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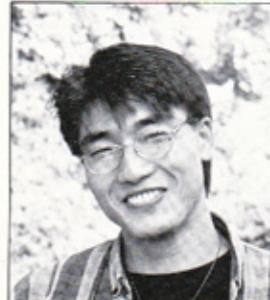
**크리드** RESTAURANT  
TEL. 812-4360 • 중실대  
지하

그린커플  
  
• 청문  
T. 816-5196



도시여자/손미라 (사사 93)

시간과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운전수/박원상 (독문 88)

1958년생

- 1978년 연극 「環」작 · 연출 신촌소극장
- 1982년 연극 「191931」작 · 연출 문예회관
- 1983년 연극 「191931」작 · 연출 드라마센터
- 1984년 연극 천주교 200주년 기념공연 「사람」  
각색, 연출 명동성당 야외무대
- 1985년 연극 「포로교환」작 · 연출  
국립극장 문예회관/산울림소극장
- 1986년 대종상 작품상 수상영화 「안개기둥」  
오리지널 시나리오
- 1987년 T.V 「또 한번 봄날」「달빛밝기」
- 1988년 연극 「TAXI, TAXI」작 · 연출 산울림소극장
- 1989년 T.V 「서러운 땅」극본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건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신은 그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창조의 능력을 부여했다. 인간은 그 창조능력으로 지금의 현대를 만들어 낸다. 인간이 글을 쓴다는 것 역시, 빈공간에서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만들어 내는 배우 역시 이런 창조의 작업을 행해내는 것이라.

작가 김상수는 80년 후반 자유와 민주의 목소리가 높아가던 시절, 그 뒤에 감추어진 우리민족의 쓰라린 상흔을 나타내려 한다. 그는 일제의 식민지 때부터 출발하여 현대에 이르는 우리내의 역사를 무대위로 펼쳐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린, 일제의 만행, 3·1운동, 이승만과 6·25, 박정희와 5·16 그리고 전두환과 5·18이란 단어들에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으며 이 사실들에 전율한다. 그러나, 우린 세대 중간에 가려진 하나의 사건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완벽한 은폐와 소름끼치는 공포에 의해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그것을 묶어두려 한다. 우리의 아버지, 형, 오빠들의 이름을 싸늘한 대리석에 새겨야 했고 수많은 미망인과 고아들, 참혹한 전장의 기억에 상처입은 우리내 형제들을 만들었기에. 그래서 우린 망각이라는 수단을 아주 잘 이용하여 잊으려 노력한다.

무(無)는 영원한 무(無)로써 존재함이 안전하다는 양팍한 사고로.

TV의 화려함, U·S·A의 네온사인 빛을 받으며, 하와이의 푸른해변을 걸으면서 여자는 꿈을꾼다.

애매보이는 얼굴에 짙은 화장을 한 여자는 그녀의 머리속에 현실과 너무 멀리 떨어진 환상을 가득 채운다. 그러나 그녀의 꿈은 지속적이지 못하다. 순간순간 파리떼 우글거리는 현실을 자각하며 절망한다. 운전사는 빠알간 입술사이로 거친 언어를 뱉어내는 여자를 본다. 그는 한심스럽다.

그의 입에서도 현실의 쓰라림과 뒤집혀버린 이 도시의 모습에 한숨으로, 타액으로 내뱉어 버린다.

그도 꿈을꾼다. 자신의 모습을, 전장에서의 모습을, 운전사는 여자의 죽음을 본다. 어디서인가 본적이 있는 듯한 여자의 모습을.

작가는 현실과 꿈, 전장의 상황과 현대도시 모습을 이극에 나오는 운전사와 여자, 베트남여인과 중사로써 정리가 필요한 혼돈을 TV와 함께 표출해낸다. 쉼없이 움직이는 인물들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던 아이가 죽든 사람이 미쳐버리던 간에 계속 말하며 외치고 떠들어댄다.

작가는 정리자를 필요로 한다. 움직이며 큰소리로 떠드는 것이 아닌 내적으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 하는 정리자를 등장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이 혼돈의 상황에서 정중앙에 앉아 있다. 양쪽의 대립되는 정과 부정, 동과 부동의 느낌을 모두 가진다. 그 느낌을 그의 내면에 잠식한다.

쌓고 쌓고, 그의 모습이 푸르러질 때까지.

김상수는 Taxi로 대표되는 도시상황에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또 다른 우리의 상처를 끄집어 냈다. 그는 망각이라는 無에서 아픔이라는 有를 만들어낸 것이다.



# ‘트래드클럽문화’

트래드클럽은 단순한 옷의 브랜드가 아닙니다.  
옷과 생활을 아울러 멋있게 하는 문화 브랜드입니다.

옷은 이미 옷이 아닙니다. 옷은 인격이요, 상징이요,

문화입니다. 문화란, 삶을 훌륭하게 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남성복식문화의 정통으로 빛나는

역사를 지켜오고 있는 트레이셔널을 오늘의

문화감각, 국제감각과 하나로 교직하여

훌륭한 삶을 창조하는 것 – 그것이 트래드

클럽문화의 개념입니다.

때문에 트래드클럽은 저희 고객을 단순히 ‘옷의

구매자, 사용자’로 보지 않습니다. 생활인, 비지

니스맨, 문화인으로 봅니다. 생활속에 비지니스속에

옷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옷과 생활을 함께 멋있게

하는 문화브랜드 – 트래드클럽.

이제 옷차림은 트래드클럽과 상의해 주십시오.

막 사입어도 일년된듯한 옷,  
십년을 입어도 일년된듯한 옷



(주)서울트래드 클럽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78-19 트래드클럽빌딩 대표전화 (02)542-8888